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을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다음 주일 “오늘” 이지선 자매 간증 있을 예정 “오늘” 8월부터 5주간 ‘한 여름의 시원한 만남’



이번 주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는 주제로 드러진다. “오늘” 연주팀의 아름다운 음악과 “오늘” 드라마팀의 ‘먼저 믿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연극이 공연되며, 이 호 목사의 설교가 이어진다. 교회와 예배 자체가 낯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이웃들을 위한 전도예배는 매시간 이런 이웃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참석한 이웃들 중에는 낯설기만 했던 교회와 아무 것도 몰랐던 예배가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인 줄 몰랐다는 고백을 서슴지 않고 말한다. 다음 주 7월 31일에는 2000년 7월 20일 교통사고로 전

신화상을 입었음에도 『지선이 사랑해』라는 감동적 교통사고 화재 수기를 책으로 펴내고, KBS 인간극장을 통해 전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한 주바라기 인생을 사는 이지선 자매가 와서 간증을 한다. 현재 보스턴대학교대학원에서 유학 중에 잠시 귀국하였는데, 4부 예배 “오늘”에 와서 간증을 한다. 이지선 자매는 최근 『미국에도 행복 바이러스 퍼뜨렸죠』라

는 두 번째 책을 펴냈다. 한편 “오늘”에서는 8월부터 5주간 “한 여름의 시원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계속된다. 8월 7일 ‘당신의 우선순위는?’ (이창현 목사), 8월 14일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용수 안수집사), 8월 21일 ‘전 너무 지쳐 있어요’ (김현령 목사), 8월 28일 ‘벗어나고 싶어요’ (이호 목사), 9월 4일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문동학 목사). 4부 전도예배를 통해 교회와 예배에 낯선 많은 이웃들이 더 많이 참석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교우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란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제로
28일부터 30일까지 4교구 여름수련회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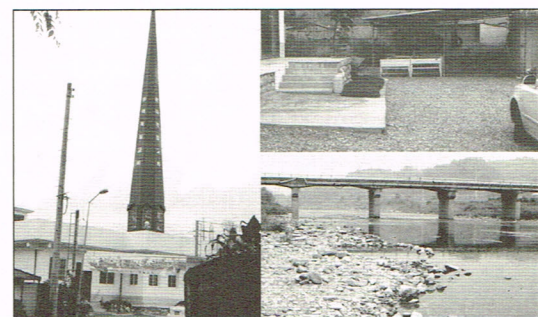
4교구 여름수련회가 오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남양주시 진광전원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28

일 오전 9시 교회에서 모여 수련회장소로 향하게 된다. 일정표와 수련회장소로 찾아오는 길의 세부적인 약도는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 비치되게 된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환영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수련회 모임이다.

회비는 장년 3만원, 어린이는 무료이며, 수련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신정웅 안수집사 011-236-0661, 하태원 집사 019-313-3073, 김선희 집사 016-798-0240에게 하면 된다.

짧은 쉼 깊은 만남,
30CUP/8교구 일일 수련회 계획해

30CUP/8교구는 7월 30일(토) 양평군 덕원리에 위치한 덕원제일교회로 소풍을 간다. 덕원리는 하늘을 가리는 빌딩 대신 무르익어가는 논을 볼 수 있고, 거리를 가득매운 자동차의 소음 대신 간이역을 통과하는 기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다. 30CUP/8교구는 이곳에서의 쉼과 만남을 위해 하루를 기꺼이 비우게 되었다. 아직은 서로 어색하고 낯선 지체들이 무더운 여름 서로의 몸을 부딪기며 서로를 알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30CUP 사역을 위해 서로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30CUP WORSHIP SERVICE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였다. 다음달 예배는 8월 21일 4시 대예배실에서 가지게 되며, SOUL SINGERS가 초대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세례예식팀 상반기 마무리 모임 가져

2004년 가을부터 세례예식을 전담하기 위해 구성된 세례예식팀은 올 상반기 장년세례 2회, 유아세례 2회의 세례예식을 진행했다. 한 번의 세례식이 진행되기 위해서 장년세례는 5주간의 교육과 문답식, 유아세례는 4주간의 교육과 문답식을 거쳐야한다. 역할을 분담하면서 매주일 각자 맡겨진 일정과 역할에 따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난주 7월 15일~16일 산정호수에 있는 한화리조트에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가졌다.

비록 모든 팀원들이 함께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바쁜 일과 속에 시간을 내어 참석한 팀원들이 잠시 멈춘 장마 비에도 감사하며, 늦은 시각에 도착한 정희성목사와 친교와 사역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산책 후 밤늦게까지 한자리에서 찬송과 기도, 그리고 지난 사역에서의 아쉬웠던 점과 개선해야 할 점 및 하반기 사역의 준비 사항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례예식팀은 유아세례, 장년세례의 교육담당과 예

식담당, 그리고 세례받은 분들의 간증과 기도문을 책자로 편집해내는 편집부터 및 기타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담당, 그리고 현재 영아부 교사들이 담당하는 탁아담당으로 크게 구성되어있다.

다음날 새벽 4시30분부터 새벽 산보를 위한 준비가 여성팀원들 사이에 한창이었다. 산정호수 산책로를 따라 산보하면서 산딸기도 먹고, 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씻기도 하며 마치 어린 시절 산에서 뛰노는 행복함에 젖어 들었다.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했다. 중간에 허브하우스에서 차를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식사 후에 웃음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5전 3승제의 게임에서 부활과 지옥의 짜릿한 코스로 인해 승부가 몇 번이나 엇지락뒤지락했다. 결국 부활의 맛을 많이 본 팀이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례사역팀의 상반기활동이 마무리되었다.

하반기 사역을 위해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고 있는데, 유아세례교육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랑 많은 성도님들과 컴퓨터를 통해 책자를 만드는데 기쁨으로 동참해주시길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문의하실 분들은 정재훈팀장(011-289-2111)에게 연락하면 된다.

목요모임

7월 21일 목요모임은 예수전도단 내적치유 전문 강사인 임삼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자기의 힘을 하나님앞에 의탁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자신의 힘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다. 많은 힘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역사가 있었다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온유를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 자기의 힘을 하나님앞에 계속 드려야 한다. 모세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민수기 20장 10~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처럼 화가 나셨을 것

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이미 모세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 쓴 뿌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자기의 의를 공의로 생각하고, 연약한 지체를 정죄하지 않았는가? 당신의 힘을 주님께 드리라.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불신이 생기게 된다. 아무리 어떤 이벤트를 한다 해도 그것은 불신이다. 불신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가장 가슴 아프고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행위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스라엘 목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은 이 세상에서 자유하여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모든 힘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과 직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

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에 자책한다면 진정한 주님의 힘을 소유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힘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신다고 했는데 전도서에서 이런 자들은 '찌'나 '끼'가 있는 자들로 묘사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에게는 감추겠다고 하신다. 이런 자들은 사람을 이용할 줄 알고 요리할 줄 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세다고 믿는 어린아이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힘을 갖고 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님을 어렵게 믿지도 말아야 한다. 살수 있는 열린 길을 주셨는데 구지 금식하면서 하지 말고 자신의 힘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다음 주 목요모임에는 예수전도단의 뛰어난 교사인 서승동 목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

소/개/글

주선영 / 영아부 전도사



먼저, 주님의교회-영아부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3년에 신대원을 졸업했고, 잠실, 흰돌, 대현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전임사역자인 남편, 세 딸(7,5,3세), 시어머니,

이렇게 6식구가 저희 가족입니다. 전도사이기에 앞서,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로서 매 주일, 예배실로 들어오는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을 대할 때 마다 제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몽클합니다.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의 연령인 출생부터 만 2세까지의 기간은 영적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1차적인 양육자-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랑과 신뢰의 기반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과 신뢰의 기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또한 만 2세를 전후하여 하나님을 처음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부 사역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영아부 사역은 영아들의 특성에 맞추어 '사랑과 신뢰'를 형성하는 사역,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 사역으로 나가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뛰어난 관찰자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영아부 교사들은 아이들을 양육해 본 경험이 있으신 집사님과 권사님들이십니다. 경험은 가장 큰 장점이지만, 경험으로 영아부 어린이들을 담기엔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다양한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얻어진 판단과 인식의 틀을 부인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개성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그런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의식 속에 믿음의 방을 세워 나가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기도, 말씀, 찬양을 포함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의도적인 교육 활동은 함께 참여하는 교사와 부모님을 모방함으로써, 그리고 정기적인 반복을 통해 영아들의 의식 속에 분명한 신앙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엄마로서 가장 속상한 일이 있다면, 아이들이 먹지 않고 뽀뽀 말라서 조그마한 감기도 이기지 못하고 골골 거릴 때가 가장 속상합니다. 이럴 때 적당하게 살이 오른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 감기쯤은 해열제 하나로 넉넉히 이겨내는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요! 우리 어린이들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크는 아이들은 세상을, 실패를,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영아부 사역은 우리 어린이들을 '기도'로 키우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교회 영아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영아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화 / 유년부 전도사



살롬! 저는 이번 7월3일부터 유년부전도사로 부임한 이진화전도사입니다. 두렵고 떨림과 또한 설렘과 기대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20년 전쯤 저 또한 유치부서부터 교회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우신 계획이 놀랍고 제 머리로는 생각지 못할 놀라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 역시 제가 맡게 된 유년부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년부 교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귀한 이 교회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징검다리 결과보고

지난 달 19일, 전교인의 큰 호응 가운데 열린 '징검다리' 바자회의 결산이 끝났다.

「이웃을 위한 구체적인 삶의 나눔 - 우리만 웃을 수 있나요?」라는 표어로 교육 주일에 맞춰 고등부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형편에 처해 공부에 매진하기 힘든 고등학생의 등록금 지원 및 대학교 진학 시 최초 입학금 지원을 목표로 준비했다. (현재 세부 계획 준비 중이며,

교회 내부 1인, 외부 1인에게 수여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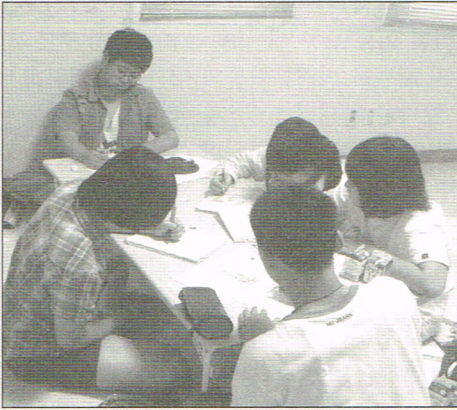
우선 교회 전체적으로 물품을 기증받는 것과 함께 교역자 및 믿지 않는 외부 인사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기증 및 모금을 진행했다. 특히 놀랄 만한 것은 평소에 나눔에 목말랐던 믿지 않는 이들의 전폭적인 기증과 기부를 받은 것인데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내어 놓기는 아까운' 물건을 내놓는 손길이 모여서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다. 또한 당일에는 음식 판매와 고등부 위십맨스팀 공연을 준비해서 장터를 보다 즐겁고 활기차게 운영했다.

이 날의 최고 관심은 경매였는데 기증자의 소중한 사연이 담긴 물품에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직접 가격을 매기면서 흥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이웃사랑과 연결되도록 했다. 마감 결과 최고 낙찰가는 담임 목사님과 그의 만찬(50만원)이었으며 각 물품들이 필요한 이들의 열띤 관심 속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바자회의 매출액은 당일 판매액과 성금 모금을 포함하여 총 8,650,390원이었으며 재료값과 준비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7,449,990원이다. 한 성도는 이번 성과는 짧은 준비기간과 부

족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나눔에 관한 뜨거운 관심과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당일 뚝섬에서 개최된 서울시 '아름다운 가게'의 수익금은 약 500만원이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고등부 교사들은 열매가 꼭 필요한 곳에 값지게 쓰이도록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을 통해 드러난 미숙한 점은 다음 번 행사 때 반영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결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등부 홈페이지 junimschoo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방학중에도 수업 계속돼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방과후학교는 평일인 목요일에도 수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원래 매주 토요일, 2시부터 6

시까지 각 과목수업이 그리고 주일, 1시부터 4시30분까지 일부 과목 수업이 진행되었으나 방학 중 평일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같이 계획하게 되었다. 따라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는 목요일 오후 12시30분부터 4시15분까지, 토요일 2시부터 5시45분까지 각 과목수업이 진행되고, 금요일 오전8시부터 10시까지 고1 영어독해가, 주일에는 1시부터 플루트와 화학이, 2시부터는 애니메이션이 진행된다. 방과후학교는 주님의 교회 청소년들 뿐 아니라 비기독교 청소년들에게도 열려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을 원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누구든지 책임자인 이종은 권사((011-9638-8719)에게 문의할 수 있다. 오는 26일(화)에는 방과후학교의 일일수련회가 오전 9시부터 밤9시까지 올림픽공원의 제3체육관(역도경기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오늘 기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소년부 여름캠프 7월 21-23일 열려

소년부 여름캠프가 7월 21(목)~23(토)일까지 주님의교회 소년부실에서 있었다. 이번 캠프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급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조그만 지팡이 하나를 들고 홍해 앞에서 있는 모세의 심정으로 이 땅을 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준비했다. 그러기에 이번 소년부 여름캠프는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용

사, 승리를 경험하라!"는 주제로 올바른 분별력과 분명한 기준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드온과 같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더 나아가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소년부 모든 교사들이 오랫동안 한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캠프의 각종 프로그램들을 획기적으로 준비해왔다. 첫째 날에는 '일어나는 주의 군대'라는 소주제로 김명현 교수의 창조론 특강과 추적게임과 집회로 영적 재무장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은 '싸움터로 향하는 주의 군대'라는 소주제로 공동체 훈련과 탁지원 소장의 이단특강, 그리고 배틀

서바이벌, 집회와 세족식으로 사단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는 소년부로 세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셋째 날에는 2박 3일간의 캠프여행을 마치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2의 기드온이 되기를 소망하는 결단식이 있었다. 무엇보다 캠프장소가 교회인 반면 어느 수련회장 이상의 교회 지형지물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아이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또한 기존의 캠프 때는 교사들이 식사준비와 프로그램진행을 동시에 하느라 캠프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 캠프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외업체와 캠프도우미의 봉사가 이뤄졌다.

썩트네(통합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통합 유아부 "썩트네"가 교회 공동체 중에서 가장 먼저 여름성경학교를 가졌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전에는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라는 소주제로 코너학습을 가졌고, 오후에는 "가정 속의 하나님 나라"라는 소주제로 코너학습을 가졌다. 두 소주제 사이에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소재로 인형극을 했다.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는 5개의 코너로 진행이 되었다. 음악잔치, 미술잔치, 춤잔치, 놀이잔치, 음식잔치로 구성되었다. 음악잔치는 생활 속에서 흔히 보는 물건들을 타악기 삼아 찬양에 맞춰 두들기며 하나님 찬양을 배워보는 시간이었다.

미술잔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체험하기 위해 벽에 그림도 그리고 동물 모양 스탬프를 찍기도 했다. 춤 잔치는 율동을 통해 하나님 찬양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해봤고, 놀이잔치는 하나님의 무지개 다리를 체험하기 위해 볼풀장에 있는 무지개 색의 공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놀이를 하였다.

음식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을 것을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는 체험을 하기 위해 각

종 과일들을 꼬치에 끼어서 옆에 친구에게 주는 놀이를 하였다.

"가정 속의 하나님 나라"는 엄마, 아빠, 언니, 할머니와 함께 가정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느끼기 위해 부모님께 감사 편지도 쓰고, 축하 파티도 하고, 아빠와 함께 카드 뒤집기 게임도 하고, 할머니가 읽어주시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은 후, 담요를 타며 좁고 흔들리는 방주에서도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참아낸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의 어려웠던 점들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아이들은 각 코너학습을 하기 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암송하여 집에 돌아갈 때는 영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말씀을 다 외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비가 많이 내린 여름성경학교였으나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고 무사히 모든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며 끝마쳤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31(일) ~ 8월 2일(화), 2박 3일간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 내 엄마목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여름 성경학교준비를 위해 4주 전부터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유년부는 오늘(24일)에도 『함께 만드는 플랭카드- '세계를 품은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활동 수업을 하게 된다.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를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하면서 성경학교를 미리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갈까?"라는 질문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난 후 현

수막에 아이들이 직접 주제글씨를 쓰고, 이에 관련된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꾸미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우수반을 시상하여 무대 앞에서 전시를 하게 될 것이다. 매년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참가하고 있는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는 지난 주일까지 약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신청을 하였다. 지난 4주간의 신나는 성경학교준비프로그램을 꼼꼼히 진행해온 유년부 교사들은 이번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은혜로운 여름성경학교를 맞이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목요모임

7월 21일 목요모임은 예수전도단 내적치유 전문 강사인 임삼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자기의 힘을 하나님앞에 의탁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자신의 힘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다.

많은 힘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역사가 있었다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온유를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

자기의 힘을 하나님앞에 계속 드려야 한다.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민수기 20장 10~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처럼 화가 나셨을 것

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이미 모세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 쓴 뿌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자기의 의를 공의로 생각하고, 연약한 지체를 정죄하지 않았는가? 당신의 힘을 주님께 드리라.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불신이 생기게 된다. 아무리 어떤 이벤트를 한다 해도 그것은 불신이다. 불신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가장 가슴 아프고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행위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스라엘 목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기록은 이 세상에서 자유하여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모든 힘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과 직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

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에 자책한다면 진정한 주님의 힘을 소유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힘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신다고 했는데 전도서에서 이런 자들은 '폐'나 '끼'가 있는 자들로 묘사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에게는 감추겠다고 하신다. 이런 자들은 사람을 이용할 줄 알고 요리할 줄 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세다고 믿는 어린아이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힘을 갖고 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님을 어떻게 믿지도 말아야 한다. 살수 있는 열린 길을 주셨는데 구지 금식하면서 하지 말고 자신의 힘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다음 주 목요모임에는 예수전도단의 뛰어난 교사인 서승동 목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

소/개/글

주선영 / 영아부 전도사



먼저, 주님의교회-영아부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3년에 신대원을 졸업했고, 잠실, 환동, 대현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전임사역자인 남편, 세 딸(7,5,3세), 시어머니,

이렇게 6식구가 저희 가족입니다. 전도사이기에 앞서,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로서 매 주일, 예배실로 들어오는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을 대할 때 마다 제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몽클합니다.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의 연령인 출생부터 만 2세까지의 기간은 영적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1차적인 양육자-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랑과 신뢰의 기반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과 신뢰의 기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또한 만 2세를 전후하여 하나님을 처음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부 사역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영아부 사역은 영아들의 특성에 맞추어 '사랑과 신뢰'를 형성하는 사역,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 사역으로 나가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뛰어난 관찰자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영아부 교사들은 아이들을 양육해 본 경험이 있으신 집사님과 권사님들이십니다. 경험은 가장 큰 장점이지만, 경험으로 영아부 어린이들을 담기엔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다양한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얻어진 판단과 인식의 틀을 부인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개성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그런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의식 속에 믿음의 방을 세워 나가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기도, 말씀, 찬양을 포함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의도적인 교육 활동은 함께 참여하는 교사와 부모님을 모방함으로써, 그리고 정기적인 반복을 통해 영아들의 의식 속에 분명한 신앙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엄마로서 가장 속상한 일이 있다면, 아이들이 먹지 않고 뼈쩍 말라서 조그마한 감기도 이기지 못하고 골골 거릴 때가 가장 속상합니다. 이럴 때 적당하게 살이 오른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 감기쯤은 해열제 하나로 넉넉히 이겨내는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한지요! 우리 어린이들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크는 아이들은 세상을, 실패를,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영아부 사역은 우리 어린이들을 '기도'로 키우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교회 영아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영아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화 / 유년부 전도사



살림! 저는 이번 7월3일부터 유년부전도사로 부임한 이진화전도사입니다. 두렵고 떨림과 또한 설렘과 기대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20년 전쯤 저 또한 유치부서부터 교회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우신 계획이 놀랍고 제 머리로는 생각지 못할 놀라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 역시 제가 맡게 된 유년부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년부 교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귀한 이 교회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징검다리 결과보고

지난 달 19일, 전교인의 큰 호응 가운데 열린 '징검다리' 바자회의 결산이 끝났다.

「이웃을 위한 구체적인 삶의 나눔 - 우리만 웃을 수 있나요?」라는 표어로 교육 주일에 맞춰 고등부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형편에 처해 공부에 매진하기 힘든 고등학생의 등록금 지원 및 대학교 진학 시 최초 입학금 지원을 목표로 준비했다. (현재 세부 계획 준비 중이며,

교회 내부 1인, 외부 1인에게 수여 예정임)

우선 교회 전체적으로 물품을 기증받는 것과 함께 교역자 및 믿지 않는 외부 인사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기증 및 모금을 진행했다. 특히 놀랄 만한 것은 평소엔 나눔에 목말랐던 믿지 않는 이들의 전폭적인 기증과 기부를 받은 것인데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내어 놓기는 아까운' 물건을 내놓는 손길이 모여서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다. 또한 당일에는 음식 판매와 고등부 워십댄스팀 공연을 준비해서 장터를 보다 즐겁고 활기차게 운영했다.

이 날의 최고 관심은 경매였는데 기증자의 소중한 사인이 담긴 물품에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직접 가격을 매기면서 흥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이웃사랑과 연결되도록 했다. 마감 결과 최고 낙찰가는 담임 목사님과 만찬(50만원)이었으며 각 물품들이 필요한 이들의 열띤 관심 속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바자회의 매출액은 당일 판매액과 성금 모금을 포함하여 총 8,650,390원이었으며 재료값과 준비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7,449,990원이다. 한 성도는 이번 성과는 짧은 준비기간과 부

족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나눔에 관한 뜨거운 관심과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당일 독섬에서 개최된 서울시 '아름다운 가게'의 수익금은 약 500만원이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고등부 교사들은 열매가 꼭 필요한 곳에 값지게 쓰이도록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을 통해 드러난 미숙한 점은 다음 번 행사 때 반영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결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등부 홈페이지 junimschoo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